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지공너덜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지금 여러분이 계신곳은 지공너덜 초입입니다. 이곳까지 오르는 동안 여러분은 주상절리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너덜경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등산은 너덜경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너덜경은 무슨 뜻 일까요?(참여유도)</p> <p>네. ‘너덜’, ‘너덜경’은 풍화된 암석이 산비탈을 덮은 것으로 한마디로 ‘돌밭’ 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돌이 흘러내려 오고 있는 듯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너덜경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참여유도/ 의견정리)</p> <p>아마도 이 너덜은 지구의 화산활동이 활발했을 무렵 땅속의 바위들이 솟아 오르면서 용암이 되어 흐르다가 식어버리자 그 자리에 우뚝 서기도 하고, 여러분이 조금 전 봤던 입석대. 서석대의 주상절리들이 부서져 산비탈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쌓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주상절리가 자연스럽게 붕괴되며 풍화와 침식과정을 볼 수 있는 너덜경들은 학술적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합니다.</p> <p>그럼 수천만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낸 무등산의 또 다른 흔적들을 찾아 이동해 보겠습니다.</p> <p>무등산의 너덜경. 즉 돌무더기가 비탈길이 되고 어느새 그 사이사이에 자라 난 관목과 어울려 일대 장관을 이룹니다. 잠깐 주위의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유도)</p> <p>무등산엔 덕산너덜. 인계리너덜등 크게 발달한 몇 개의 너덜이 있습니다. 그 중 이곳은 지공너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엔 이름과 관련하여 전해져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승려 지공대사란 분을 아십니까?(참여유도)</p>

인도의 승려 지공대사란분이 고려 충숙왕때에 잠깐 들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 와서 석실을 만들고 좌선수도하면서 그의 법력으로 수억만의 돌을 깔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그의 제자 나옹선사가 이곳 무등산에서 수도를 하면서 그의 스승 지공을 기려 이름을 지었을거란 이야기입니다.

네. 전해져오는 이야기와 함께 주위의 풍경을 보셨는데요

멀리 보이는 능선을 보실까요(참여유도)

가을이면 능선위에 피어난 억새꽃이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모습을 보고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여러분도 그러한 광경을 상상해보면서 이름을 지어볼까요(참여유도)

네 백마능선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가을이면 특히 많은 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 찾고 있는 곳입니다. . 또한 왼편으론 봄이면 철쭉으로 장관을 이루는 안양산등 전라남도 화순의 몇몇 봉우리와 들녘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보조석굴이라는 곳입니다. 바위가 저절로 지붕을 이루어 굴이 되었는데 기둥을 세우고 문을 달아 암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석굴에서 오래전 보조국사가 수도하고 뒷날 송광사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산비탈을 따라 몇 킬로미터 혹은 그 보다 더 작은 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무등산의 너털경은 지나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돌 사이에서 생명을 내리는 녀굴 이끼와 작은 관목들이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다양한 자연의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